

‘4·3문학비평’에 대한 비판적 성찰*

— ‘4·3문학비평’의 갱신을 위하여—

고 명 철**

1. 문제 제기: 공전(空轉)하는 ‘4·3문학비평’

4·3이 우리의 역사에 그늘을 드리운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나 명쾌히 풀리지 않는 4·3의 역사적 과제는 지금, 이곳의 살아있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강요되는 망각과 침묵, 그리고 왜곡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고 밝히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동시에 이것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자들을 억압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더욱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산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레드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는 4·3과 관련된 역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전면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4·3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미완의 탐구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학과 역사를 중심으로 한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4·3관련 창작은 물론, 여러

* 이 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는 4·3문학에 대한 기존의 비평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학술 연구와 비평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고유영역이 서로 이질적이지만, 4·3문학의 경우 4·3과 함께 완결된 결정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학이란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학술 연구의 형식을 띤 개별 논문 역시 ‘비평의 정신’이 내재된 광의의 ‘비평’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3문학과 관련하여 제출된 기존의 학술 연구와 (실제)비평을 모두 ‘비평 담론’으로 포괄하는 가운데 논의하기로 한다.

** 문학평론가,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사회단체를 통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4·3의 진실찾기'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4·3은 우리 모두를 억압하고 병들게 해온 한국사회의 병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¹⁾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의 본격적 물꼬를 튼 '문학'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두루 알다시피 현기영의 중편 「순이삼촌」(『창작과비평』, 1978년 가을호)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4·3의 가공할 만한 역사적 충격은 우리로 하여금 「순이삼촌」이 발표되기 전까지 남몰래 숨죽여온 4·3의 역사적 실체를 정면으로 응시하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후 「순이삼촌」에 의해 촉발된 4·3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맥락 속에서 괄목할 만한 창작 성과로 축적되고 있으며,²⁾ 이러한 창작을 기반으로 한 비평 역시 창작 못지 않은 성과를 축적시키고 있다.³⁾ 그리하여 '제주'란 지역성을 토대로 한 "제주문학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주제는 '4·3문학'이라고 할 수 있"⁴⁾을 정도로, 4·3과 관련된 문학은 이제 '4·3문학'이란 고유명사의 자격을 소유함과 아울러 그에 걸맞은 상징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4·3문학'을 통해 4·3의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적 진실을 구명(究明)하는 생산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상징권력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4·3의 역사적 진

1) 황상익, 「의화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 337

2) 4·3문학의 창작을 주도하고 있는 소설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4·3관련 소설 목록은 김동윤의 「4·3소설의 전개 양상」(『탐라문화』 19집,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1998, pp. 88-89)에서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3) 4·3문학비평의 성과에 대한 개괄적 검토에 대해서는 김동윤, 「제주문학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20집,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1999, pp. 52-54과 양영길, 「4·3문학의 흐름과 과제」, 『제주작가』 2호, 1999, pp. 113-115 참조.

4) 김동윤, 「제주문학의 현황과 과제」, 54면

실에 대한 탐구를 진척시키는 문제와 '4·3문학'의 진전에 곧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이하고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필자가 '4·3문학'과 관련된 기존의 비평 담론을 검토하면서 제기하는 문제는 '4·3문학'의 갱신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곧 '4·3문학'이 확보한 상징권력의 구체적 실현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론에서 상세한 논의를 펼치겠지만, 글의 서두에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면에서 몇 가지를 제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4·3과 관련한 창작이 축적시킨 성과에 비해 비평은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여기에는 비평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파악할 수 없는 비평 외부의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 글의 앞머리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분단체제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아직도 그 해결이 요원하기만 한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 작업은 비평의 문제의식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안겨준다. 비평이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바, 무엇보다 4·3을 다룬 작품의 비평이 4·3에 대한 역사적 가치 평가에서 동떨어진 문제의식을 지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4·3문학비평'을 억압하는 4·3의 또 다른 면인 셈이다. 말하자면 4·3은 당대의 삶과 그것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후대의 삶의 전영역에 걸쳐 억압적 실제로 현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4·3문학'에 대한 비평의 주체는 비평 외부의 역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처럼 '4·3문학비평'의 외부적 요인이 말 그대로 외부적 요인으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비평의 내부 문제와 깊숙이 연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외부적 요인은 4·3의 역사적 중압감에 짓눌린 비평 주체의 아비투스⁵⁾를 형성하고 있다. 4·3을 직접 체험한 세대에게는 물론, 4·3을 미체험한 세대에게도 4·3의 역사적 중압감은 그들의 비평적 문제의식을 유사한 문제들에 의해 동어반복적 비평 담론의 형태로 재생산하게 한다.⁵⁾ 이것은 비평

5) 필자 역시 4·3문학을 비평의 대상으로 다루는 데 이 같은 비평에서 크게 벗

주체의 무의식 속에 '4·3문학'의 지배적 이미지가 획일화된 패턴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4·3문학비평'은 자신도 모르는 새 '4·3문학'을 비평하는 비평의 상징권력에 매혹될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인바, 이러한 비평의 상징권력은 특권화됨으로써 '4·3문학'의 비평 담론을 생산해내는 것만으로도 4·3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에 젖어들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평의 주체에게서 '4·3문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4·3문학비평'이 자칫하면 '제주'란 특징의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4·3문학'을 '지역주의 문학'의 폐쇄적 담론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4·3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주 지역 안에서만 논의되는 특수한 문학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문제가 '4·3문학'이 민족문학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평 주체의 예각적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이것은 그동안 '4·3문학비평'의 대부분이 민족문학과 관련 아래 풍성한 비평 담론을 제출하였지만, 민족문학의 갱신이란 차원에서 '4·3문학비평' 역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민족문학의 위기란 흐름 속에서 '4·3문학'도 예외일 수 없듯이 '4·3문학'의 갱신과 민족문학의 갱신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는 비평의 쟁점으로 인식된다. 필자는 여기서 과거의 화석화된 문학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어나지 않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필자처럼 민족문학의 관점에서 4·3문학을 비평하는 경우, 민족문학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도 제기되었듯이, 민족문학의 자기동일성에 매몰됨으로써 민족문학론은 자신도 모르는 새 경직되고 폐쇄적인 비평 담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은 4·3문학비평도 예외가 아니다.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학적 탐구를 거시적 방향성으로 두고 있는 4·3문학비평의 경우 목적에 경도된 가운데 4·3문학비평 내부의 문제를 치열하게 성찰하는 성숙한 비평의 문제의식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4·3문학비평의 이데올로기는 도그마화되고, 공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있는 '4·3문학'에게 새롭게 대두되는 민족문학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글의 서두에서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바는 기존의 '4·3문학비평'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논쟁적 쟁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논쟁의 주체가 없으니, 논쟁적 쟁점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4·3문학'뿐만 아니라 '4·3문학비평'의 갱신이란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4·3의 역사적 진실 탐구의 과제가 그 무엇에 의해 결정지어진 게 아니듯이 '4·3문학'에 대한 비평 역시 특정의 비평 담론에 결정지어진 것은 아니다. '4·3문학'의 진전은 활발한 비평의 논쟁 속에서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길이 모색될 것인데,⁶⁾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비평의 논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4·3문학'을 둘러싼 척박한 논쟁의 토양 속에서 '4·3문학'과 '4·3문학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문제의식 아래 비록 거칠지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비평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할 것이다.

2. '4·3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관계

'4·3문학비평'이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은

-
- 6) 4·3문학에 대한 비평의 논쟁적 대화는 공전하고 있는 4·3문학비평에 생산적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4·3문학이 제주의 문학과 문화에 적극적 소임을 다하고, 더욱이 제주의 지역문학으로만 자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평의 논쟁을 통한 생산적 대화의 길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태일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4·3문학의 전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경청할 만한 전언이다: "연구를 말하고, 정실을 앞세우는 소지역일수록, 더욱 논쟁 방향을 찾고, 생각을 힘써 마련해 연구가끼리, 또는 연구가와 창작인끼리 가치정향을 위한 길항관계를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 가치로 얽혀 있는 지역사회에 문학이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는 잣대 뚜렷한 문제적 대화로부터 얻

‘4·3문학’의 지역적 한계를 창발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하자면 ‘4·3문학비평’은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역사성에 기반한 ‘4·3문학’을 제주의 지역문화적 특수성으로만 환원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그렇다고 ‘4·3문학’을 대상으로 다룬 일체의 비평이 지역문학의 특수성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기존의 4·3문학비평에서도 지역문학의 특수성을 지양함으로써 ‘4·3문학’의 생산적 계기를 모색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제출된 비평 담론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필자의 문제제기는 최근 몇 년간 ‘4·3문학’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오면서, 그동안 산만하게 논의되어온 ‘4·3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온 소장파 연구자 김동윤의 비평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가운데 구체화된다. 김동윤은 「4·3소설의 전개 양상」에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표된 4·3소설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 가지 단계(피상적 접근 단계,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 다양화·종합화 단계)로 나누어 사적인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4·3소설의 통사적 접근은 그보다 앞선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토대를 둔 것인데,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작가론 또는 작품론에 치우쳤는가 하면,⁷⁾ 몇 작품을 중심으로 한 4·3소설의 유형을 제시하는⁸⁾ 정도에 그친 것을 볼 때, 김동윤의 이러한 통사적 접근은 비

을 바가 클 것이다.”(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p. 127)

- 7) 그렇다고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3의 금기를 깨고 그것의 실상을 알린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각론은 이후 4·3문학을 이해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평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들 주요한 연구 성과는 각주3)에 소개된 글을 참조.
- 8) 김병택의 「4·3소설의 유형과 전개」(『국문학보』 10집, 제주대, 1990)은 그동안 쓰여진 4·3소설의 유형의 토대를 정초한 중요한 연구성과다. 문제는 그가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의 분류기준이 자의적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로 겹치

록 소설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이후 '4·3문학'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보다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⁹⁾

그런데 통사적 접근이 갖는 자체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가 설정한 세 단계는 4·3소설의 현상적 특징만을 부각한 나머지 매 단계의 주요한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우선, '피상적 접근 단계'에서 그는 외지인과 제주인에 의해 발표된 작품의 성격을 검토하는 가운데 각각의 소설적 한계를 적시해낸다. 외지인의 경우 4·3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결핍 문제를, 제주인의 경우 경직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4·3에 대한 피상적 접근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그가 설정한 단계를 이해하는 데 어느 면에서는 유효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외지인과 제주인에게서 보이는 한계를 이러한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그가 설정하고 있는 이 단계가 외지인이나 제주인 모두에게 경직된 정치적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라는 점이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이 시기는 6·25전쟁 이후 전개된 분단시대의 모순 속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 아래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허용치 않는 시기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억압과 질곡의 경직된 정치적 상

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검토를 통해 4·3소설의 큰 한계이기도 한, 4·3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문제제기한 바는 이후 4·3문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식을 구성한다.

- 9) 따라서 이 장에서 필자는 주로 김동윤의 「4·3소설의 전개 양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4·3문학비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글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동윤의 통사적 접근이 그동안 논의되어온 개별 비평적 성과에 토대를 두었기에, 지금까지 제출된 개별 비평의 문제의식에 대한 통사적 접근을 보이는 그의 비평 담론이 바로 4·3문학비평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의 기능을 맡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에 기인하기

황은 외지인이나 제주인 모두에게 4·3을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외지인보다 제주인에게 이러한 원인이 4·3을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짓는 결정 인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경직된 정치적 상황이 곧 4·3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가로막는 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4·3을 체험한 제주인의 소설에서 4·3에 대한 인식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이해이기 때문이다.¹⁰⁾ 4·3에 대한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인식은, 그의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 각종 4·3연구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4·3소설의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제주인 역시 4·3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인식의 측면에서 피상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필자가 이 단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김동윤의 논의가 4·3소설과 그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천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상적 접근 단계'로 명명한 이 시기의 4·3소설의 정체성은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소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이 4·3소설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발표된 분단문학과는 어떠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럴 때 이 시기의 4·3소설에 대한 통사적 접근은 제주지역의 한계를 넘어 분단문학의 거시적 조망 속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에서 김동윤은 이 시기 소설에

때문이다. 그리고 김동윤 또한 필자처럼 4·3의 미체험 세대로서 4·3의 직접적 체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4·3문학비평의 갱신을 위해서는 4·3의 미체험 세대에 의해 인식되는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10) 이러한 점에 대해 양영길은 김동윤의 세 단계를 수용하는 시각에서 이 시기의 창작에서 보이는 4·3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들의 인식의 한계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금기를 깨뜨릴

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제주민중의 수난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문학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학적 의미는 그동안 '4·3문학'에 대한 비평의 대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현기영의 『순이삼촌』에 의해 충격적으로 공개된 4·3의 비극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제주민중에게 가해온 언어절(言語絶)의 수난상을 정직하게 고발·증언하는 게 문학의 일차적 임무라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발과 증언이 어떠한 문학적 장치에 의해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에서 4·3이 유소년시절의 문학적 체험의 형상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이 시기의 모든 작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이는 4·3의 비극성은 작가의 체험에 기반을 둔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형상화된 만큼 유소년시절의 체험과 4·3, 그리고 이것의 문학적 형상화가 맺는 관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것은 4·3소설뿐만 아니라 분단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작품들에서도 주요한 문학적 특징을 이룬다.¹¹⁾ 그리하여 4·3의 참담한 비극성이 이 시기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만 동어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비극성의 실태를 소개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문학적 장치에 의해 4·3의 비극성이 형상화되고 있는지, 특히 유소년시절의 체험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4·3은 어떠한

만한 여건의 미성숙과 금기로 말미암은 4·3인식의 방법적 토대를 찾아내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양영길, 「4·3문학의 흐름과 과제」, 『제주작가』 2호, p. 108)

- 11) 분단문학은 전쟁체험의 유무에 따른 세대론적 접근에 의해 검토되었는데, 특히 전쟁미체험 세대의 형상화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비평적 탐구의 대상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병익, 「6.25컴플렉스와 그 극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이동하, 「분단의식의 소설적 전개」, 『문학의 길, 역사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6; 김윤식, 「6.25전쟁문학」, 『운명과 형식』, 솔, 1992; 줄고, 「한국전쟁의 유년기 체험에 대한 인식론적 소설쓰기」, 『성균어문연구』 33집, 1998 등

형상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탐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4·3에 대한 그 당시의 역사적 현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¹²⁾ '4·3문학비평'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극성을 드러내고 알리는 '계몽의 서사'에 초점을 두기보다 비극성에 대한 '성찰의 서사'에 초점을 두는 비평이 더욱 생산적인 비평의 문제들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윤이 설정한 '다양화·종합화 단계'에서 그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풍성해진 4·3에 대한 다양한 성과에 주목하면서 4·3소설의 저변이 확대되어 간 현상을 작품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성실한 검토는 '4·3문학'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값진 성과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4·3문학'이 현재진행형이듯이 동시대의 문학 흐름 속에서 '4·3문학'의 현재적 위상에 대한 문제가 상세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990년대 민족문학의 위기와 '4·3문학'이 무관하지 않다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탈역사성과 온갖 해체주의 담론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90년대의 문학지평 속에서 4·3의 역사적 진실 탐구라는 '4·3문학'의 과제는 민족문학의 위축과 함께 요원한 것으로 인식된다.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이 시기의 4·3소설에 대한 김동윤의 비평 시각이 4·3소설의 현재성에 천착하지 못한 채 4·3소설을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이것은 이 시기의 소설을 검토하면서 이 시기만이 갖는 소설적 특징이 선명히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비록 이 시기의 소설이 이전 시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문제는 작품의 현상적 특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시기의 작품이 이전 시기의 작품과 대동소이한 형상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 시기에 4·3소설

12) 4·3의 주요한 역사기록물로는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4·3 피해조사보고

의 장편화 경향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각각의 장편의 주요 서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중·단편에서 접근하지 못한 4·3의 문제점이 장편이란 소설의 내적 형식에 의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대중역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김동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기하는 공통적 문제의식은, 4·3소설의 내재적 전개 양상에만 치우친 실증적 정리에 치우친 결과, 그가 분류한 매 단계마다 보이는 4·3소설의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석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논의가 지금까지 산만하게 펼쳐진 4·3소설의 통사적 이해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밀한 비평을 결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통사적 접근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는 분단문학과 민족문학의 거시적 담론과의 관계 아래 4·3소설의 특수성을 지양할 생산적 계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이것은 '4·3문학'과 '4·3문학비평'을 제주의 지역문화적 범주로만 경계지우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4·3문학비평' 스스로가 '4·3문학'의 정체성을 탐구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 '배제'와 '고립'의 내면화된 논리에 침윤될 수 있다. 말하자면 "4·3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감대가 제주문제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¹³⁾기 때문에 결국 제주의 문제로만 자족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논자로 현길언을 들 수 있다. 현길언의 '4·3문학'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제주의 4·3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문학, 특히 소설 장르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일한 맥락 아래 놓여 있다. 그에게 문학은 삶의 주변부의 문학이 갖는 보편적 속성으로 이해한다.

서·수정 증보판, 1997;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할수다』 I·II, 한울, 1989;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등이 있다.

그리하여 그는 중심부/주변부의 대립적 구도에 의해 중심부가 '이데올로기적'임에 반해 주변부는 '생존 지향적'인 데 주목하여, 제주는 바로 이 주변부에 속해 있고, 따라서 제주의 4·3 역시 이러한 주변부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4·3문학'을 예의 중심부와 거리를 둔 주변부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된다.¹³⁾

이러한 그의 비평 담론은 최근에 발표한 「제주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제주작가』 4호, 2000)에 집약돼 있다. '4·3문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 즉 제주의 '4·3문학'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지양하여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경청할 만하다. 문학과 4·3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의 주변성으로서의 '4·3문학'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4·3을 탈정치화·탈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4·3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길언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지금까지 추구해온 '4·3문학'의 성과를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4·3문학비평'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무관한 영역에서 문학만의 미적 자율성의 성체에 간혀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출된 '4·3문학비평'이 여실히 웅변해준다. 비평의 주체마다 개별적 편차는 있을지언정 4·3과 관련된 왜곡된 역사와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서사'에 초점을 둔 비평의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현길언과 달리 오히려 '4·3문학'에 대한 새롭고 진전된 비평의 문제의식은 예의 '저항의 서사'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비평의 정치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4·3사건이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의 끊임없는 교체 과정에서 발생된것

13) 양영길, 위의 글, p. 114

14) 현길언의 이러한 일련의 문제의식은 그의 문학 연구와 창작에서 주요한 공간을 이룬다. 「제주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제주작가』 4호, 2000; 「제주학 연구 방법론-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 1997; 「제주 4·3사태에 대한 작가의 부채」, 『제주문학』 19집, 1990 등 참조.

임에도 불구하고 그 4·3사건을 소재로 한 4·3소설에서 이데올로기끼리의 갈등을 찾아 볼 수 없"¹⁵⁾는데, 그 원인에 대한 비평적 탐구가 4·3소설의 이러한 해묵은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이 살아있는 자들을 아직도 억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면, '4·3문학비평'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야 할 것이다.¹⁶⁾

그런데 현길언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접하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아야 할 본질적 부분은 그가 지향하는 세계문학의 성격이다. 4·3의 정치성을 탈각시킨 4·3의 문학적 탐구가 세계문학으로 승화되는 데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세계문학에 작동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측면이다. 우리가 흔히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문학이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산물이듯이 그러한 세계문학은 제국주의 패권주의 문화논리에 의해 '4·3문학'과 같은 제3세계의 문학을 '배제'와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흡수해버리고 그 문제성을 희석시키고 만다. 이러한 세계문학은 '4·3문학'을 자신이 손쉽게 조작·관리할 수 있는 '변방의 문학'으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제3세계의 문학에 대한 세계문학의 식민성을 은폐시키게 된다. 여기서 현길언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현길언에게 주변성은 중심부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며, 주변성은 중심부와 마치 별개의 영역처럼 독립변수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사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인류의 주변부적 삶의 실상에 대한 탐구"¹⁷⁾는 중심부에 의해 '선택/배

15) 김병택, 위의 글, p. 17

16) "이들(4·3문학작가들-인용자)은 4·3을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변혁기에 일어난 하나의 불행한 역사 정도로 인식하여, 사태의 성격과 그 진실성 이전에 그 사태 자체에 좀더 애정을 갖고자 한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4·3이 갖는 전체적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자칫 4·3을 역사발전 선상에서 이탈되어 버린 수난의 역사,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김창후, 「4·3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 4·3연구소 소식』 22호, 제주 4·3연구소 1996. 1. 10. 17면)

17) 현길언, 「바다와 섬의 문학과 문학의 본질성」,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제' 된 주변부적 삶의 구체적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심부의 이데올로기와 절연된 주변부의 주변성은 구체적 삶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4·3문학'을 탐구하는 데도 예외가 아니다. '4·3문학'이 제주의 특수성을 지양하여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은 냉전시대로 빚어진 제주의 제3세계적 모순을 극복하고, 더욱이 분단체제의 온갖 구조악(構造惡)과 행태악(行態惡)에 저항하는 가운데 4·3의 비극성을 체험한 제주의 민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중과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전세계의 민중의 현실과 연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주의 '4·3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도약하느냐의 문제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세계문학으로 도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때문에 여전히 '4·3문학'에서 중요한 과제는 탈정치성과 탈이데올로기가 아니라 '4·3문학'의 이러한 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한 '비평의 정치성'과 '비평의 이데올로기'를 창조적으로 전유(專有)하는 길이다.

3. '4·3문학비평'의 갱신

'4·3문학'에 대한 비평의 새로운 문제의식의 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4·3문학'이 과거의 문학적 유산으로 인식됨으로써 '4·3문학'을 어떤 완결된 결정체로 파악하려는 비평의 접근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점이다. 앞서 필자가 강조하였듯이 '4·3문학'은 과거의 화석화된 문학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구체적 삶의 현실에서 '현재진행형'의 자격을 띠고 있다는 비평적 문제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말해 '4·3문학비평'이 동시대의 문학과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여기서 또 다시 90년대 이후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 시대 문학의 주요 경향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상기하고 싶은 문학 현상은 4·3과 같은 역사의 거시적 문제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종래의 전통적 서사성은 각종 문화텍스트의 수용 아래 그 위상이 크게 변모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제주도의 4·3문학은 제주 항쟁문학의 전통 위에서 이해되어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¹⁸⁾와 같은 비평의 명제는 당위성에만 머물뿐, 동시대의 문학 흐름과 괴리되는 비평 주체만의 강박적 문제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4·3문학’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학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이곳의 문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작가에게 이중의 과제로 제기된다. 하나는 4·3의 역사적 진실 탐구에 매진해야 할 ‘4·3문학’의 과제가 여전히 존속하며, 다른 하나는 90년대의 각종 문화담론의 홍수 속에서 ‘4·3문학’의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내실있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즉 ‘4·3문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문제다.¹⁹⁾ 물론 작가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이중의 과제는 곧 ‘4·3문학비평’에게도 동시에 부여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4·3문학비평’을 살펴보면, 전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제몫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역점을 두고 있으나, 후

18) 김현선, 「제주도 4·3문학의 실상과 의의」, 『문학정신』, 1990. 4. p. 161

19) 필자는 4·3문학의 대중성 문제를 떠올려볼 때마다 90년대 이후 급팽창한 영상문화와의 생산적 대화를 생각해본다. 예컨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이하 「JSA」)는 그 원작이 박상연의 장편 『DMZ』(민음사, 1997)인데, 원작이 독자로부터 홀대를 받은 반면, 영화는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영화가 원작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분단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할 계기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분단의 문제가 소설을 통해서서는 달성될 수 없는 반면, 영화를 통해서서는 소설 이상의 효과를 산출해내었다. 물론 「JSA」에 대한 비판(분단상업주의)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분단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에 내면화된 분단체제의 질곡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할 계기를 던져 주었다는 점에서 「JSA」는 소설의 서사가 말을 역할을 톡톡히 대신해주고 있

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비평적 고민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0년대의 제주문학은 문인들이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문학적 성과가 없다. 4·3사건을 붙들고 작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나 독자들은 소설보다 이 분야의 기록물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제민일보의 『대하실록 제주민중운동사/4·3은 말한다』는 우리가 지금껏 궁금해 했던 것 상당부분을 해소해 주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다. 독자들은 4·3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 궁금해 하던 차에 그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진상을 알려고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록물인 4·3민중운동사가 나오면서 문학에서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4·3소재의 문학이 나오고 있으나 독자들의 반응은 식어가고 있다.²⁰⁾

위 인용문에서 읽을 수 있듯이 90년대의 제주문학은 양적인 면에서 팽창하였으며, 4·3에 대한 문학적 관심 역시 끊이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4·3문학'이 독자의 반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사기록물이 출간됨에 따라 '4·3문학'이 맡고 있는 역할을 다양한 역사기록물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금기시되었던 4·3의 역사적 비극성을 체험하고 4·3에 대한 각성된 역사인식의 고양을 담당했던 '4·3문학'의 가치가 역사기록물에게 이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

는 셈이다. 그렇다면 4·3문학의 경우삼을 수는 없을까. 필자는 여기서 소설을 포기하고 영화에 전적으로 기대자는 도 「JSA」를 타산지적으로 게 아니다. 「JSA」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영화의 서사와 소설의 서사가 창조적으로 접맥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말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총화인 영화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영화와 생산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4·3문학과 '4·3문학비평'의 갱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출판부, 2000 증보판, p. 34-35

21) 물론 현기영의 「쇠와 살」(『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과 같은 작품인 경

에는 '4·3문학'의 창작이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갱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익숙한 4·3의 창작 경향에 젖어 있었던 게 큰 원인이다.²¹⁾ 그러나 창작 못지 않게 비평 또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창작의 갱신을 위해 비평은 창작과 생산적 대화를 통해 창작의 정체성(停滯性)을 극복하기 위한 비평 담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3문학비평'은 그동안 구축해놓은 비평의 문제틀 안에서 사실상 동어반복적인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비평 담론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자족했다. '4·3문학비평'이 쟁취한 '저항의 서사'에 대한 상징권력에 오류가 도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4·3문학'에 대한 비평의 주류가 항쟁사적 관점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비평의 주류성이 내부의 반성적 성찰 없이 '4·3문학'을 비평하는 지배적 담론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비평의 갱신이 부재한 맹목화된 비평 담론을 또 다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4·3문학비평'의 주류성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작가 현기영도 적시하고 있듯이 "4·3항쟁의 이데올로기를 수정없이 실천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착오"²²⁾나 다름이 없는바, 이것은 90년대 이후 사회 변혁의 논리가 7·80년대와 다른 심급에서 다층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3문학비평'의 갱신 여부는 90년대 이후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여기에는 '4·3문학비평'에서 그동안 소홀히 간주된, 주제론적 접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시도되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4·3

우 4·3에 대한 형상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리얼리즘적 전통에 입각한 소설과 구별되는, 모더니즘의 기법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리얼리즘 소설쓰기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주요한 동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4·3민중항쟁의 역사적 복원을 '전위적'으로 소설 담론화하고 있는 증좌라 하겠다. 줄고, 「변방에서 타오르는 민족문학의 불꽃」, 『월간문학』, 1998, 7, 224-225면

22) 현기영, 「좌담: 제주민중항쟁 논의와 현단계」,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p. 44

문학비평'이 4·3의 정신사적 측면(항쟁사 또는 수난사)에 초점을 두다 보니, '4·3문학'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학살,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비평적 탐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집단학살의 경우 '4·3문학'을 민중의 수난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 비극적 현실을 증언·고발하는 '계몽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는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4·3의 집단적 광기와 폭력성의 메커니즘에 천착함으로써 4·3과 같은 전대미문의 집단학살이 인간에게 가해오는 '근원적 폭력'의 문제에게까지 심화되고 확장된 비평 담론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비록 문학비평은 아니지만, 한 논자의 "4·3의 폭력성은 4·3을 진압하고 평정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남한이라는 근대적 국가의 '근본적 폭력'과 그 정당성을 구축하는 '희생적 질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²³⁾는 주장은, 집단 학살을 주제론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접근할 '4·3문학비평'에게 시사한 바 크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학살의 경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집단학살은 제주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 같은 근본적 폭력의 정당성으로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삶 터가 훼손당하고, 그 와중에 제주의 자연은 분단의 정치이데올로기 아래 합리화된 도구적 이성에게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4·3문학'의 곳곳에서 보이는 것인데,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하고 소개(疏開)하는 장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역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낯익은 비평적 접근은 문학을 통한 4·3의 피해양상에 주목한 것이지,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 국가의 도구적 이성의 파행성에 주목하지는 못했다.²⁴⁾ 근래 생

23)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역사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 241

24) 4·3관련 문학비평의 대부분이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과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김동운의 「역사적 상상력과 생태학적 상상력의 만남」, 『섬의 문학』 3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 1997은 4·3과 관련된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천착한 비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평적 접근이 「마지

태주의 비평적 관심이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4·3문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생태계 파괴는, 분단시대의 이데올로기 질곡이 생태계 파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한 비평적 탐구의 대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뜩이나 "사회의 온갖 문제적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인간다운 삶을 지향해 온 우리 서사문학의 전통 속에서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 파괴에 주목한 서사적 전통이 얕다는 것"²⁵⁾을 상기해볼 때, 4·3의 역사적 진실 탐구의 맥락 속에서 담론화될 생태계의 문제의식은 값진 비평적 성찰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필자는 그동안 우리에게 낯익은 '4·3문학비평'의 주류성을 발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당위성과 맹목성을 집착하는 '기존의 '4·3문학비평'의 문제의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이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과제와 무관한 측면에서 비평의 문제의식을 갖자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4·3의 역사적 진실은 어느 특정한 비평의 문제의식만으로는 온전히 추구될 수 없음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변화되어 가는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비평 담론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4·3의 새로운 비평적 접근을 담당해야 할 비평의 주체 문제다. 필자는 이 비평의 주체를 이른바 '4·3문학비평의 후속 세대'로 잠정적으로 호명하는바, 점차 4·3문학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볼 때, 4·3의 미체험 세대인 '4·3문학비평'의 후속 세대, 그 정체성을 성찰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제주 4·3을 사회적 환기와 관심의 대상으로 밀어올릴 주체의 형성이 부족"²⁶⁾하다는 준엄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가볍게 지나칠 수

막테우리」(『문예중앙』, 1994년 봄호)와 같은 특정한 일부의 작품론에만 해당된 나머지 4·3문학의 전반적인 비평 문제의식으로까지는 확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25) 줄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생태환경, 그 서사화의 현주소」, 『제주작가』 5호, 2000, p. 55

26)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제주 4·3과 한국현대사」, 역사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4·3문학'과 '4·3문학비평'의 갱신을 추동시키는 주체의 존립과 생성에 대한 물음과 직결된 것이기에, 어쩌면 가장 근간이되는 비평적 과제인지 모른다. 두루 알다시피 이들은 4·3을 미체험한 세대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4·3은 이들 세대에게 양가성으로 다가간다. 우선, 4·3의 역사적 충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점차 4·3 당시의 실상을 규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1차 자료가 발굴되고,²⁷⁾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의 넓이와 깊이가 확보됨에 따라 좀더 정확한 4·3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4·3을 한갓 역사의 기록물을 채우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자연스레 인식함으로써, 말하자면 4·3은 우리의 술한 근현대사의 질곡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순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나머지 4·3의 역사적 진실의 탐구는 요원해질 수 있다. 사실 필자는 이 양가성 중 어느 측면이 이들 세대의 비평적 문제의식을 추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필자는 오히려 그러한 성격이 4·3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4·3에 대한 접근이 선배세대가 노정한 한계와 '인식론적 단절'의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4·3의 특수성에 매몰될 게 아니라 분단체제의 모순된 현실과 4·3과 같은 문제성을 지닌 다른 나라의 민중과 연대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갱신될 수 있는 비평의 문제의식으로 전화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이들 세대에게 '4·3문학비평'에 대한 '성찰의 비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

문제연구소 외 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 432

- 27) 4·3 당시의 정확한 실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특히 4·3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4·3관련 미국 소장 문서들이 얼마전 김창후 전 4·3연구소 부소장 등 자료수집 전문위원 2명에 의해 미국국립문서보관소 등의 일부기관에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제주일보』, 2001. 5. 3). 이렇듯이 4·3관련 자료의 발굴 못지 않게 최근 공중파 MBC를 통해 두 차례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연맹」(2001. 4. 27/ 5. 4)에서는 역사기록물과 문학을 통해 알고 있었던 4·3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집단학살의 여러 문제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한 '성찰의 비평' 이야말로 '4·3문학'을 동시대의 다양한 문학과 공존하며, 그 관계 속에서 '4·3문학'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4. 맺음말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과 함께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 민중의 위엄을 되살리는 작업이 사회 각계의 관심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 본격적 계기가 '4·3문학'을 통해 얻어졌다는 것은 '4·3문학'의 긍지이자, '4·3문학'으로 하여금 강한 책임감을 수반케 한다. 때문에 필자는 '4·3문학'과 '4·3문학비평'의 갱신을 위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그동안 제출된 '4·3문학비평'의 담론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90년대 이후 급변한 문학 토양 속에서 '4·3문학'의 창작과 비평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가운데 '4·3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할 수 있겠다는 성찰적 비평의 문제의식에 연유한다. 왜냐하면 4·3과 '4·3문학'은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미완의 '현재진행형'으로서 지금, 이곳의 살아있는 자들의 삶 깊숙이 그들을 드리우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기존의 '4·3문학비평'이 갖는 현재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해본다.

무엇보다 필자가 문제삼은 바는 '4·3문학'이 지역주의 문학의 한계를 벗어나자면, 지역성에 기반을 두되, '4·3문학'의 여러 맥락이 국내외 다른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제3세계 민중의 현실과 연대하는 가운데 '4·3문학'의 특수성을 지양한 보편적 계기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4·3문학'이 지역의 편협한 문학으로 고착되지 않고 성숙한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길이기

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4·3문학'을 억압해온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저항하는 생산적 이데올로기를 성숙한 비평의 문제의식으로 전유해야될 과제가 제기된다. '4·3문학비평'에게 요구되는 것은 탈정치성과 탈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은폐되고 왜곡된 4·3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실천적 동력을 제공해줄 '비평의 정치성'과 '비평의 이데올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문학과 민족문학의 거시적 문제들과 밀접한 관계 아래 '4·3문학'에 대한 비평적 탐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면서도 또한 변화되는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4·3문학비평'의 주류성(항쟁사 혹은 수난사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비평)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그리하여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주제론적 측면에 의한 비평적 접근이 심도 있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4·3문학'에 대한 비평의 갱신은 '4·3문학비평 후속 세대'의 입지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3을 미체험한 이 세대의 '4·3문학'은 4·3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4·3문학'의 진전된 비평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의 비평적 문제의식을 창조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직 이 과제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노정한다. 결국 이 과제는 '4·3문학'의 대중성 확보의 맥락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듯이 독자로부터 점차 이반되는 '4·3문학'을 독자의 결으로 어떻게 다시 다가가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결부된다. 이렇듯이 '4·3문학'의 창작과 비평은 갱신되어야 할 문제가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 물론 이러한 갱신은 "현실운동, 통일운동과의 결합관계, 그리고 제3세계의 민중운동과의 관계"²⁸⁾에 대한 문제의식을 변화되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창발적으로 승화시키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공전하고 있는 '4·3문학'의 창작과 비평을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4·3문학'을 '현재진행형'의 살아있는 것, 즉 역동적 실체로 파악하는 비평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28) 고창훈, 「좌담: 제주민중항쟁 논의의 현단계」,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p. 33

A Critical Introspection on the 'Criticism of 4·3 Literature'

-for the renewal of 'Criticism of 4·3 literature' -

Ko Myungcheol

Abstracts

With a close examination of historical truth about 4·3, the project to recover the dignity of Jeju people who were killed at that time on a false charge has been carrying out continually by various social circles. Its full-scale beginning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4·3 literature', which means it is a pride of 4·3 literature at the same time it accompanies 4·3 literature with strong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roblem conscious toward the renewal of '4·3 literature' and 'criticism of 4·3 literature', I tried to introspect critically on the argument of 'criticism of 4·3 literature' submitted so far. In the rapidly changing literary climate since in the 1990s, while looking honestly reality that the creation and criticism of 4·3 literature stayed without changes, it causes the problem conscious of introspective criticism in which a new opportunity of 4·3 literature can be happened. The reason is 4·3 and its literature, as an uncompleted 'present progressive' form not the completed one, are a real form whose shadow lies down deeply into the life of living people in Jeju. Therefore, I raised the problems in the several ways around the real problems about existed 'criticism of 4·3 literature'.

Most of all, in order to escape from the limitation of local literature I raised, it should consider the universal opportunity based on the locality

to head for the peculiarity of '4·3 literature' while connecting with reality of people of the third world, as well as the point connecting various context of 4·3 literature with other area at home. It is also a way to participate as a part of mature world literature without adhering to isolated local literature.

Therefore, a task is raised that ideology of divided system to surpass 4·3 literature and productive ideology to resist should be appropriated to a problem conscious of mature criticism. The requirement of criticism of 4·3 literature is 'critical politics' and 'critical ideology', not the post politics and post ideology, to offer practical force for exploring historical truth of distorted 4·3. The critical exploration on 4·3 literature is urgently required under the close relation with comprehensible problem frame of divided literature and national literature. Also the main stream(criticism recognized in the viewpoint of resistant history or suffering history) of existed 'criticism of 4·3 literature' should be broken up progressively in order to quickly prepare changing reality. Therefore, the critical approach by the thematic aspect like 'mass slaughter' and 'destruction of ecosystem' should be carried out seriously.

However, the renewal of criticism on 4·3 literature like the above should not overlook the fixing point of criticism of 4·3 literature of following generation. Because 4·3 literature of following generation who did not experience 4·3 is free from it, they can achieve the advanced criticism. On the other hands, it can bring the opposite results. Therefore, we should gather wisdom in order to prepare the basis in which we should change creatively critical problem conscious of this generation. I also have a limitation not having a concrete alternative about this task. With the context of security of the public, 4·3 literature is connected with a problem how it gradually having go

ne away from readers approaches to them.

The creation and criticism of 4·3 literature is in the point in which the problems that should be necessary to renew are raised critically. Surely this renewal is related to enhance creatively in the concrete reality in which the movement of reality, connection with unification movement, and problem conscious toward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movement of the third world have been changing. In order to renew the creation and criticism of 4·3 literature in the static state, it requires the change of conscious of criticism which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living thing of 'present progressive' or a vigorous substance.